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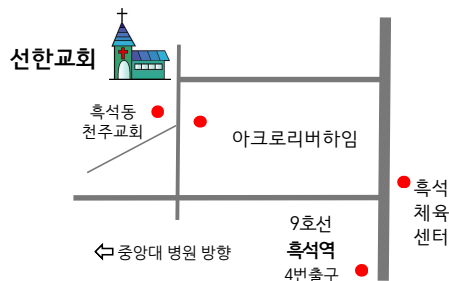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1부 주일 오전	9:30	오전 11:00	여호수아회 오후 2:00
2부 주일 오전	11:00	오전 11:00	요 셉 회 오후 2:00
3부(청년) 오후	1:00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오 후 예 배		오전 10:00	루 디 아 회 오후 1:00
주일 오후	3:30	오전 10:00	마 리 아 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오전 10:00	드 보 라 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오전 10:00	에 스 더 회 오후 2:00
금 요 기도회	금요일 저녁 8:30	오전 10: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오전 10:00	
셀가족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오전 10:00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 임 목 사 임 춘 배	
		교육목사 정용준	국내선교사 오인숙, 한배선
		전임전도사 윤영	협력교회 가슴뛰는교회(원종선 목사)
		협력전도사 오호남	기쁨교회(유성은 목사)
			주안예교회(이정필 목사)
			주의뜰교회(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해외협력선교사	
		김만조, 이금춘, 조나단	
장 로		관 리 장 로	
		손석규	
		(1호) 필리핀 Good Church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표 어 너희는 강하게 하라 (대하 15:7)
Be strong and do not give up

실 천 사 항 믿음의 선포 제자의 삶 선교사의 삶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히 12:3)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주 일 예 배		1부 오전 9:30 3부 오후 1:00	2부 오전 11:00	인도: 임춘배 목사 인도: 정용준 목사
1, 2부			3부(청년)	
기 원	인도자		경배와 찬양	
찬 양 과 경 배	122장 (통일찬송가 122장)			
교 독 문	교독문 119번 (성탄절 1)			
찬 양 과 경 배	123장 (통일찬송가 123장)			
기 도	박영근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성 경 봉 독	히브리서 12장 1~3절		요 19:19	
설 교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자 (임춘배 목사)		당신의 왕은 누구인가? (정용준 목사)	
헌 금	헌금송 : 김미숙 권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청년부 회장	
파 송 의 노 래	하나님의 부르심		삶의 예배	
축 도	임춘배 목사		정용준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주일 오후		사회: 임춘배 목사
찬	양	Joy And 찬양팀
기	도	김석범 집사
말	씀	에베소서 3장 6절
설	교	함께하는 기쁨 (임춘배 목사)
광 고	및 축 도	임춘배 목사
2부: 성탄절 전야제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시편 75편 1~10절)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배 안 내	1) 주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2) 오늘 점심 봉사는 여호수아회입니다. 3) 교회헌금계좌: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4) 주차 안내: 중앙대 정문 주차장 이용 (네 시간 주차: 2천원권 / 네 시간 이상 주차: 5천원권). * 주차권은 교회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 성 탄 절	* 오늘 오후 예배는 성탄절 전야제가 있습니다. * 25일(월) 오전 11시에 성탄축하예배가 있습니다.	
3. 인 사 위 원 회	오늘 2부 예배 후 인사위원회 회의가 1층 안디옥실에서 있습니다.	
4. 3 부 예 배	오늘 3부 예배(청년부)는 성탄절 전야제 리허설로 인해 지하 2층 청년부실에서 드립니다.	
5. 2 0 2 4 년 달 력	2024년 벽걸이 달력과 탁상용 달력을 드립니다. 가정별로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6. 셀 가 족 모 임	다음 주일(31일) 오후 예배는 셀가족 모임으로 드립니다.	
7. 송 구 영 신 예 배	* 31일(주일) 밤 11시에 송구영신예배가 있습니다. * 오후 9시부터 가정별 축복기도를 시작합니다.	
8. 예 결 산 자 료 제 출	2023년 결산자료(대상: 교육부서 및 자치회, 영수증 포함)와 2024년 예산안을 재정부(재정위원장 손영삼 집사)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청 년 부 겨 울 수 련 회	* 주제: RESTART * 일시: 31일(주일) 오후 1시~9시 * 장소: 선한교회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감당하는 신앙이 되도록.
-----------	--	---

가정예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찬양	찬송 :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84장(통96)	
본문	요한복음 9장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길을 걸으실 때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를 앓고 태어난 한 시각장애인 인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람의 장애가 있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인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시각장애인을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고 하시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제자임을 자처하며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경죄하며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요 9:41)고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믿게 된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볼 힘을 주셨고(시력), 들을 힘을 주셨으며(청력), 이해할 힘을 주셨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엡 5:8)	
	흠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씻기시고 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영적 세계까지 볼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십니다.(엡 5:9)	

아직도 이 땅에는 어둠 속에 살며 세상 임금의 통치 아래 있는 많은 백성이 있습니다. 과거의 일들로 현재를 해석하며 온갖 정죄와 죄책감 속에서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빛과 진리의 등불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찾아가야 합니다. 성탄절에 낫고 천한 곳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며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이웃과 열방에 그 아름다운 빛을 반사하는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왔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도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 천성을 향해 전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하시며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시 18:1)

은혜의 말씀	
제 목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 12:1~3)
서 론	믿음의 선조들처럼 이제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본 론	1. 우리가 해야 할 경주 (1)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1절a) (2) 좋은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①모든 무거운 것과 ②엎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③인내로써 경주해야 함(1절b) (3) 좋은 경주자의 모범(2절): ①시선 고정: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②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③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심 ④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④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3절)
	2. 교훈 (1) 이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차례 (2) 좋은 경주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3) 좋은 경주자가 되기 위해 바라봐야 할 분은?
	결 론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훌륭하게 완주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배 기도	박영근 장로	이태수 장로
2부 예배 헌금	서창덕 집사	심인섭 집사
오후 예배 기도	김석범 집사	
주 방 봉 사	여호수아회	루디아

매일 Q.T.		성령이 증언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날짜 : 12월 25일 월요일
찬양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본문	누가복음 2:25~38		
말씀요약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안나 선지자도 이때 나아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합니다.		
묵상질문 1	시므온의 찬미 2:25~35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패함과 흥함을 위해 세워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달라지나요?		
묵상질문 2	여선지자와 안나의 증언 2:36~38 안나는 과부가 된 이후 어떻게 지내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천이 따라야 할까요?		
한절묵상	누가복음 2장 25절 성도의 삶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으로, 그 위에 성령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바로 성취되지 않고 기다림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다림이라는 믿음의 도가니에서 만들어지고 단련됩니다. 기다림의 길에는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습니다. 계속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고민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길에는 성령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실패와 절망으로 좌절하는 영혼을 위로하실 분은 주님뿐입니다. 눈앞에 고난이 있을 때 더욱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저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실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소서. 일상을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개인 성경 공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찬양과 기도	주의 말씀 듣고서 (새 204) 주님 말씀하시면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골프 선수 최경주 형제가 AT&T 내셔널에서 처음으로 PGA 우승컵을 안았을 때입니다. 대회 전날 그의 아내는 성경 한 구절을 써 주면서 이 말씀을 외우고 경기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집을 나설 때까지만 해도 외웠던 말씀을 첫 번째 홀 티샷을 하려는 순간 갑자기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도저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려고 애를 쓰면서 15번 홀까지 왔는데 문득 고개를 들어 보니 스코어보드에 자기 이름이 제일 위에 있더라는 겁니다. 최경주 선수는 경기 내내 그저 어제 외운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해 내려고 애썼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승하겠다는 중압감에서 벗어났고, 지나치게 힘을 쓰는 대신 부드럽게 공을 쳐서 실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할 때, 다시 말해 계속해서 말씀 안에 머무를 때, 말씀이 우리의 의식 세계를 빚을 뿐 아니라 무의식 세계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최경주 선수는 그 대회에서 15번 홀 티샷을 자신 있게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 그토록 떠오르지 않던 성경 구절이 마치 막혔던 수문이 한꺼번에 열리듯 단번에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자신감이 더 차올랐고 스윙은 더욱 견고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8번 홀에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다시 성경 구절을 외웠고 마지막 순간에 우승컵을 안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 조정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두란노)
말씀 나누기	잠언 30:1~14
묵상포인트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합니다. 순전함은 잘못되거나 오염되지 않은 무오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전쟁 때 방패가 적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듯, 하나님은 그분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를 세상의 해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성도는 무오하고 완전한 하나님 말씀을 일점일획이라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는 중언부언하지 말고, 일상에서 꼭 필요한 것과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아굴처럼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선한 응답을 경험할 것입니다.
관찰과 묵상	인간의 보편적 무지를 언급한 아굴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묘사했나요?(5절)
적용하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떠했나요? 앞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아야 할까요?
함께 기도하기	하나님 말씀이 무오하며 완전함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세상의 거짓과 유혹을 이겨 내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만물의 주권자 앞에 서는 의롭고 당당한 삶	날짜 : 12월 29일 금요일
찬양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본문	잠언 30:15~33		
말씀요약	아굴은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것, 기이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없게 하는 것, 땅에 있는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위풍 있게 잘 다니는 것 등에 관해 말합니다. 또 만일 스스로 높은 체했거나 악한 일을 도모했다면 손으로 입을 막으라고 교훈합니다.		
묵상질문 1	만족함이 없고 자취가 없는 것들 30:15~20 사람이 알 수 없는 자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19~20절)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는 나의 죄는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지혜롭고 당당한 것들 30:21~33 어떤 대상이 위풍 있게 걸으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나요?(29~31절) 내가 사람들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잠언 30장 33절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은 쉽게 노를 품습니다. 눈앞의 승리를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멀리 바라보는 시각이 없기에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혜자는 당장 이기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을 보고, 오늘을 영원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지혜자는 오늘의 승패보다 지금 자신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에 더 집중합니다. 성도가 누리는 내적 평안과 여유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생각할 때 깃듭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저를 향한 주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소서. 작은 죄라도 늘 경계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깊이 회개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과 품위를 지키며 살게 하소서.		

매일 Q.T.		의로운 통치자와 백성이 기쁨으로 노래하는 나라	날짜 : 12월 26일 화요일
찬양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본문	잠언 29:1~14		
말씀요약	책망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합니다. 백성은 의인이 많아지면 즐거워하고 악인의 권세를 잡으면 탄식합니다. 아침하는 것을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노를 드러내고 지혜로운 자는 노를 억제합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신원하면 왕위가 견고할 것입니다.		
묵상질문 1	고집과 교만의 위험 29:1~6 계속 책망을 받는데도 목이 곧은 자의 결말은 어떠한가요?(1절) 더는 고집 부리지 않고 겸손히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돌이킬 일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평화를 추구하고 도움을 주는 삶 29:7~14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나요?(11절) 내가 분노를 다스리고 온유함으로 서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요?		
한절묵상	잠언 29장 7절 니체는 그의 책 ‘권력에의 의지’에서 악한 자를 도와주라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가난한 자들이 만들어낸 ‘노예들의 윤리’라고 말합니다. 가난한자를 품는 긍휼과 사랑의 공간은 모든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함께 아파함’으로 다가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의인은 선을 왜곡하는 세상의 언어에 속지 않습니다. 의인은 백마디 말이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긍휼과 사랑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세상 통치자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소서. 가족과 이웃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악인의 삶을 거부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로 이웃을 사랑하고 화평의 은혜를 나누게 하소서.		

매일 Q.T.		말씀으로 훈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날짜 : 12월 27일 수요일
찬양	찬송가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본문	잠언 29:15~27		
말씀요약	자식을 징계하면 그가 평안과 기쁨을 줄 것입니다. 목사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나, 율법을 지키면 복이 있습니다.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나 겸손하면 영예를 얻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사람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목상질문 1	교육과 징계의 필요성 29:15~19 마음대로 행하게 내버려 둔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15절) 다음 세대가 바르게 성장하도록 내가 성실하게 가르칠 것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바른 삶을 위한 지침 29:20~27 사람을 두려워할 때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2절)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누구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는 욕망의 이면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더욱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불안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와도 같기에 그분 앞에 달려가는 사람은 안전함을 얻습니다(18:10). 우리 삶의 주관자는 그의 호홉이 코에 있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로만 키우려 했던 부모의 무지함을 회개합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잘못했을 때 징계로 교육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조급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 하는 신앙으로 살게 하소서.		

매일 Q.T.		지혜자의 기도에 담긴 겸손함과 자족함	날짜 : 12월 28일 목요일
찬양	찬송가 3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본문	잠언 30:1~14		
말씀요약	아굴이 이다엘과 우갈에게 이른 잠언입니다. 그 자신은 지혜와 자식이 없으나,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고 합니다. 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길 주님께 구합니다. 한편 종을 그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목상질문 1	아굴의 두 가지 기도 30:1~9 왜 아굴은 자신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길 간구했나요?(8~9절) 경제적인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멀리해야 할 사람들 30:10~14 거만해 사람을 무시하는 악한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13~14절)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한절묵상	잠언 30장 2~3절 참된 지혜자는 매사에 겸손합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여정의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지식의 한계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모르고는 지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고 어리석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누구도 하나님을 안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참된 지혜자는 자식의 허무함에도 빠지지 않고 도리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참지식의 출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어리석고 무지한 제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꺾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 말씀이 율음을 인정하게 하소서. 거짓과 허영이 제 마음에 조금도 유입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맡은 일을 잘 진행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